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 앞에서

송구영신예배와 신년예배

1997년을 마무리하고 1998년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가 '98년 1월 1일 0시에 교회당에서 드려진다.

예배는 0시정각에 타종과 함께 소동한 상태로 시작된다.

송구영신예배에서는 신년메시지가 선포되고 교회의 갱신과 국가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새해 새 출발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한 뒤 순서를 맡은 이들이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순서를 갖는다.

교우들은 예배시작 30분 전에 미리 착석해 지난 날을 생각하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다. 따라서 1997년 12월 31일(수) 오후 11시 30분까지는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12월 31일(수) I·II부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한편 1998년도 첫 주일인 다음 주일(4일) I·II·III부 예배는 신년감사예배로 드린다.

새 해,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다짐하며 성찬식을 거행한다.

또한 이날 예배의 헌금시간에는 신년감사 헌금을 드린다.

교회학교 졸업식

교회학교 졸업식이 각 학교별로 오늘 일제히 거행된다. 졸업식을 갖는 부서는 12개 교회학교 중 연령과 학령에 의해 구분되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부 등 모두 7개 교회학교이다.

순결서약식

1월 4일(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1998년도 순결서약식이 있다.

이에 앞서 서약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1997년 12월 3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리엔테이션 및 기도회가 진행된다.

'98청지기수련회

1998년도 청지기 수련회가 1월 5일(월)에 시작한다.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지기수련회는 교회학교 교사, 예배위원, 찬양대원, 전도회 임원, 교구일꾼, 장로·안수집사 등을 대상으로 새벽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하며 11일(주일) 찬양예배 시는 제직 헌신예배로 드린다.(주요 일정 4면)



송구 영신예배가 1998년 1월 1일 0시에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있게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기 위해 예배 시작 30분 전에 착석하여 감사와 회개와 새로운 결심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새해를 통독사경회와 함께

신정연휴 기간인 2일(금)과 3일(토) 이틀간 '성경통독사경회'가 개최된다.

새해를 성경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경회는 2일간 연16시간 동안 신약성경을 한 번 읽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경회의 진행은 낭독자가 앞에서 성경을 읽는 동안 참석자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따라 읽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간표는 하루를 4교시로 나누어 휴식시간은 각 교시 중간에 10분씩, 식사시간은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참가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통독하기에 좋은 글씨가 큰 성경과 필기구, 색연필 등이며 성경책은 당일에도 교회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회비는 식대를 포함하여 2만원이며 접수 마감은 31일(수)까지다.

추천되는 성경통독사경회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눈으로 글자를 바로 보고, 귀로 정확하게 들으면서 읽는다.

② 손에는 색연필을 들고 줄을 치거나 각종 표시를 하면서 읽는다.

③ 장의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 끝부분에 "아멘"이라고 외친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는 "○오장"이라고 힘차게 외친다.

④ 낭독자들이 읽는 동안 일체 잡담을 금하고 성경읽기에 집중한다.

⑤ 성경전체의 맥(흐름)을 기억하면서 읽도록 한다.

성경통독사경회 시간표

구분	시간
제 1교시	09:00 ~ 10:30
제 2교시	10:40 ~ 12:30
점심	12:30 ~ 14:00
제 3교시	14:00 ~ 15:50
제 4교시	16:00 ~ 18:00

특별제직회와 공동의회

1. 특별제직회

- 때: 1997년 12월 28일(주일) 찬양예배 후
- 의제: ① 1997년도 결산 승인 의 건
② 1998년도 예산 승인 의 건
- 회원: 본 교회 제직

2. 공동의회

- 때: 1998년 1월 4일(주일) III예배 후
- 의제: ① 1997년도 결산 승인 의 건
② 199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의 건
③ 기타
- 회원: 본 교회 세례교인

송구영신 특별메시지

에베소서 4장 25 - 32절

목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 사람된 우리가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거짓을 벗고 참을 입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의 특징 중의 하나는 진실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는 거짓말하는 자가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짓' 이라함은 단순하게 거짓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인격이 비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며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의도적이라기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에 대해 부주의하여 거짓말도 하게 되고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대해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모신 자로서 늘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된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거나 떠난 생활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분노를 벗고 영적 각성을 입으라

성경에 나타난 분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격노해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는 자제할 수 없는 광폭한 이기심의 발로에서 폭발하는 분노로서 죄를 짓기 쉽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한 분노로 주님께서 지상생활에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으니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불순종하는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 진노를 발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분노는 자기의 감정, 자존심 혹은 무지함, 자기 존재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오는 자기 오류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분노로 인해 범죄하기 쉽습니다.

만약 분을 내었다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고 하셨습니다. 분을 오래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옆에 있는 것을 다 태우고 마지막에

는 자기까지 태워버리니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큰 해가 됩니다.

야고보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약 1:19)고 교훈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거듭난 새 사

는 자기까지 태워버리니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큰 해가 됩니다.

나도 바울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엡4:28)고 한 경고를 겸손히 받아 선한 일에 힘쓰는 천국시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4. 더러운 말을 벗고 덕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말을 주셨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혀로 선을 이루기도 하고 악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데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무례하고 저급한 말을 하지 않을 뿐더러 흉내도 내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말의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약3:2-6).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불의한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또 성령은 연합시키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면 성령님께서 매우 섭섭해 하십니다.

'은혜'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니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전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주님을 인정해야 하겠습니까.

5. 악독을 벗고 사랑을 입으라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버려야 할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훼방하는 것, 악의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은 사랑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며 서로 용납하고 죄에서는 자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옛 사람과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벗을 것과 입을 것



이종운 목사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람은 분을 오래도록 품지 않을 뿐 아니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영적으로 항상 각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도적질을 벗고 선을 입으라

십계명 중 제 8계명의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많은 것이 내포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쳐야 할 것, 행해야 할 것을 제대로 못했다면 그것이 도적질입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 교회에서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직장생활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성껏 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들어보는 새해 소원 ④

조용한 봉사자 되게 하소서

양태영 권사(3교구)

1

한양 땅 강남 벌에 서울교회 세우고
목마른 사슴들이 구름같이 모이니
찬송소리 기도물결 울려퍼지는
서울교회 앞날이 반석 위에 빛이어라

2

찬 이슬 많은 공기 마셔가면서
시대의 향도자로 받은 소임을
기도로써 감당하려 새벽종 깨우며
농칠세라 빠질세라 달려오나니
발걸음도 가벼운 우리 모두여

3

신구약성경의 모든 말씀과
청지기 모범은 오직 예수님
봉사와 희생의 공지가 되고
내 시간과 내 맘을 오직 주 위해

4

예배와 봉사의 모범이 되며
사랑과 섬김과 행함의 미덕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하고 겸손하게
가정과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지켜주소서.

오늘 주간성경공부 수료식

오늘 찬양예배 시 올해의 '주간성경공부' 수료식이 있다. 그간 배포된 50주의 주간성경공부 중 40주 이상을 제출해 오늘 수료하는 183명의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교구

김쌍금 오충례 방계운 송두심 최난수 채항석 이갑연
배은희 유근종 유영광 유나영 최무순 이경란 유지연
노영숙 이은희 이응선 박순봉 최영순 전인화 배영애
이관모 강풍자 임인자 이자혁 박양숙 김천진

2교구

최재춘 이혜순 김명심 정연택 하영수 임옥균 박영자
박정순 오승민 고후덕 김선희 이영자2 김선아

3교구

임희춘 김인자 정종숙 현경옥 조삼원 양태순 전현숙
최근자 박은미 황정심 김정임 주화인 심재을

4교구

김복녀 이승민 조대영 장효옥 윤문자 김병숙 송정희
유복달 김조영 최 완 최학인 최소희 홍광숙 권창순
이영숙 정경자 김향권 임훈규 강혜신 박미혜 윤복순
이영주2 임선철 이옥녀 김명옥

5교구

김경희 이민화 박창희 이남복 정봉금 안창희 김일용
원복순 김순희

6교구

김종자 이영희 김성은 김경옥 이혜선 한금희 김병용
김영란 성종숙 유후자 김운재

7교구

김치순 윤영자 박종민 김복순 윤순란 이영숙 허정자
임윤자 임순자 이영서 나희주 박은혜 김동호 이부자
나소정 김영준 이상호 오윤경 최은하

8교구

강명신 김광옥 안인호 권영옥 여현진 서영희 김명숙
홍성주 양숙란 이정근 제오복

9교구

조명녀 최정숙 김영연 김은애 이희성 최경애 강정옥

최정자 전용순 이종호 고영철 김공숙 송옥혜 송금자
김의순 김만선 유 신 조상희 김진숙 윤봉준 권오준
김찬웅

10교구

정혜순 서정원2 최종시

11교구

최금자 김구진 왕경래 이영서2 권영자 신정순 이기홍
곽선자 이점숙 김중복 조정옥 조옥섬 유숙인 김병상
김정희 김정수

12교구

이안순 오세정 이옥현 박명석 최일춘 허인숙 유인정
정희순 임상현 서희숙 김대웅 여옥기 박순재

✦ 순례자 컬럼 ✦

내가 그린 인생작품

농부들이 땀 흘려 지은 농사가 잘 되었을 때 풍작이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흉작이라 한다. 풍작은 아니지만 흉작을 면한 경우에 평년작이라 한다.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을 걸작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실패작이라 한다. 걸작까지는 못되지만 실패작을 면했을 경우에 가작이라 한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살이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모세나 바울같이 살았다면 걸작인생이요 아합이나 가룟유다같이 살았다면 실패한 인생이라 할 것이다. 걸작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평년작 인생은 되어야 한다면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 주의 집에 전시되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인생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제 2회 교회갱신연 동문회 주최 신학심포지엄 개최

1998년 1월 12~13일 1박 2일 간
경기도 광주군 소재 광림수도원

제 2회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신학심포지엄이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 간 광림수도원(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소재, ☎ 0347-66-4917)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 동문회(회장 차정운목사)가 주최하고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원장 이종윤목사)이 후원한다. 주제는 “98년 목회 계획과 성장”. 개회예배 설교는 이종윤

목사(서울교회)가 맡는다. 첫날에는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가 “창조적 목회와 성장”, 이승하 목사(해방교회)가 “이상적인 목회계획”이라는 내용의 특강을 하며 정장복 교수(장신대)가 “98년 목회계획과 성장”이라는 제하의 주제강연을 한다.

둘째날 새벽기도회는 이동현 목사(평화교회)가 인도하며,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가 “강해설교와 성장 목회”, 이성희 목사(연동교회)가 “도시교회의 미래목회”라는 제하의 특강을 하며 민경배 박사(연세대 교수)가 종강예배 설교를 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는 목회자신학세미나 네 학기를 수료한 목회자들의 모임으로 1994년 3월에 창립되었다.

현재 이 동문회는 한국교회의 연합과 갱신의 초석이 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거듭되는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고 교회갱신의 도전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른 목회를 위해 서로 격려하고 목양을 위한 자료들을 수집, 교환하고 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의 참가대상은 동문 목사와 전도사 등 전국의 목회자이다.

신청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02-3426-4236) 또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02-517-7651 ~ 5)으로 하면 된다.

등록비는 3만원.

1998년도 각 위원회

■ 선교위원회

지 도 김정현 목사
위 원 장 홍정호 장로
서 기 이완형 집사
회 계 박두호 집사
위 원 김세재 노송성 신용식 왕경래
이변생 최난수 장애희 이경희
고윤화 권순단 김예환 이영희1

■ 구제위원회

지 도 이성득 목사
위 원 장 노문환 장로
서 기 김영주 집사
회 계 민순구 장로
위 원 임훈규 허희철 임상헌 이순례
박경희 이영자1 고영철 김종윤
김명화

■ 관리위원회

위 원 장 이남호 장로
서 기 성준경 장로 (부) 서문석 집사
회 계 오정수 장로 (부) 한길동 집사
차 량 위 원 서춘식 이상호 이승우 권오준
김동언 김시환 이인근 김영구
김용호 탁경준 서창원2 신정일
이상근 조원섭 임선철 장양일
봉 사 위 원 이영주2 외
관 리 위 원 하영수 황정옥 이관규 김윤자
윤문자 이부자 김금준 정동호
김경아

■ 재정위원회

위 원 장 오정수 장로
서 기 김대호 장로
회 계 윤봉준 장로
위 원 임상헌 노영숙 고윤화
계 수 위 원 김영주1 나중영 박두영 안의경
왕경래 유중관 최용걸 홍성주
홍정선 안창휘 송인권 오유식
최재규 하인선 임동규 오치열

■ 건축위원회

위 원 장 임광식 장로
부 위 원 장 박철훈 장로
서 기 최중시 장로
회 계 오정수 장로
위 원 이용선 민순구 홍정호 이영기
하영수 오광환 이승우 이옥녀
김중복
곽동희 김진환(설계)
차현명(기계)

■ 동산관리위원회

위 원 장 김태기 장로
서 기 최형렬 집사
회 계 임선철 집사
위 원 김선미 이영자1 외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12월 새가족 환영회

* 12월의 새가족 *

유임호 이미란 김중환 송인중 한성구
양재원 정미경 이진민 김자영 심은영
김진용 김웅신 박성진 유세진 방명숙
김진영 박유신 박성환 권필하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교회 주간신문<순례자>
사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순례자> 편집위원 일동 -

여러분의 원고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 전화 (02) : 517 - 7651 / 교회(이성득 목사)
· 팩스 (02) : 516 - 9641 / <순례자> 편집실
· 천리안 : pek9 · 유니텔 : popo0

1998년도 청지기수련회 일정

구분	교회학교교사	예배위원	찬양대원	전도회임원	교구일꾼	장로·인수집사	청지기 전원
일자	5일(월)	6일(화)	7일(수)	8일(목)	9일(금)	10일(토)	11일(주일)
5:30	새벽기도회						(찬양예배)
5:50	교회학교 운영의 실제	예배위원의 자세	찬양과 예배	효과적인 전도회 운영	교구일꾼의 역할	중직자의 사명과 자세	청지기 헌신예배 및 제직수련회
6:30	박귀환 목사	이순환 목사	민영수 목사	김정현 목사	이순환 목사	이성득 목사	이종윤 목사

추가

동명이인고유번호

정영자 1 (0171) 성남다락방
정영자 2 (2056) 서초 2다락방

12월 교사대학 강좌

12월 교사대학강좌가 오늘 II부 예배후 1층에
배설에서 개최된다. 오늘 강의는 "교사의 영성개
발"이며 강사는 오성춘 교수(장신대)이다.

동정

◆ 이번 주 봉사자를 위한 식사는 오정수 장로 · 이영희1 집사 가
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 앞에서 새해를 의미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2. 연말연시 교회행사들을 위해
3. 나라와 민족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